

추대 화

Ph.D. 독문학, 본회연구위원

독일 그 먼나라 하지만 세 개의 가까운 에피소드

하나:

폐허를 넘어서

멀리서 들려오는 포화소리는 매일 끊이지 않고 있었다. 공습경보 소리만 나면 사람들은 서둘러 지하대피실로 몸을 숨겨야 했다. “Totaler Krieg”(전면전쟁)을 외치며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던 나치집단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들의 사상에 찬사를 보내는 맹신주의자들이 보였지만 적어도 바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감언이설을 믿지 않았다.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연합군과 나치당의 방송내용은 정반대였다.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실 앞에 경악할 뿐이었다.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을 전장에 내보낼 수 밖에 없었던 여인들은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연합군의 승리를 기대해야 하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다. 차라리 남편과 아들들이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생존해 있기만을 바랐다.

모든 도시는 파괴되었다. 잔해만 남았다. 그토록 웅장했던 성곽과 성들도 무너져 버렸고 남은 것이라고는 불에 타 그을린 벽돌만이 허무를 알려

4 세 개의 가까운 에피소드

왔다. 도시는 쉴새없이 연기를 뿜으며 신음하고 있었다. 공습이 그치지도 일주일이 넘었는데 불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다. 건물 잔해 속에서 연기가 꾸역꾸역 스며 나오고 있었으며 때로 폭음을 동반한 폭발이 간간히 들려왔다. 지옥의 인페르노(Inferno)가 그 문을 활짝 열고 쳐들어 오고 있는 것 같았다.

틸리케 목사는 부랴부랴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 입었다. 그리고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배당으로 입장한다. 예전 같으면 문을 대여섯번 열고 닫았어야 할 터였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교회는 폭격에 대파되었고 문은 불에 타 물골이 흥했다. 그는 벽들 잔해를 조심스럽게 비켜가며 발을 디뎌야 했다. 교회 안은 어느 곳 하나 본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없었다. 연합군은 방송을 통해 독일군의 패전이 가까왔다고 하면서 독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공습을 중단한다고 전해 왔었다. 그것은 영국에서, 불란서에서 강력한 전파를 타고 들어왔고 때로는 독일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비밀저항단체의 미약한 전파를 타고 들려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치잔당들은 아직도 승전보나 행진가를 더 큰 출력으로 방송했다. 최후의 발악이었다. 거짓이었다. 속임이 가득찬 방송이었다. 이미 유럽의 각 지역에서 연합군에 의한 회복이 실행되고 있는데도 거짓을 발표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나치 동조자들에 대한 린치, 테러들이 일어났다. 복수의 복수전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틸리케 목사는 자기 교구에 속한 성도들에게 목회서신을 전달하였다. 그 골자는 이러했다. '나치당원들이 비록 불법을 우리에게 자행했을지라도 우리는 공의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먹을 들 때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절차에 맡기십시오. 우리의 죄와 실수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났으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이십시오. 주의 구원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폭격에 무너진 자신의 집들을 복구하기에 정신이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먼저 복구하자고 말하였다.

예상치도 않은 일이었다. 많은 자들이 모여 회개하고 속죄의 예배를 파할 때에는 모두들 가지고 온 연장을 손에 들었다. 부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남자들은 전장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 자들은 상이군인이 많았다. 목사는 먼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배당 한 구석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종탑이 있는 부분은 접근을 금지하였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를 정도로 파괴되었기 때문이었다. 성도들은 이 작업이 시작되자 매일 교회에 모여 몇 시간씩 봉사하였다.

종을 칠 수 없게 된 것을 보자 툴리케의 마음은 찢리듯 아팠다. 차라리 그 종이 폭격에 깨어지게 된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 들여졌다. 나치당원들이 히틀러의 생일에 교회종을 치도록 명령하였다. 그것은 암암리에 전국으로 퍼진 비밀공문의 내용이었다. 툴리케 목사는 한마디로 웃어 넘겼다. 분노는 속으로 삭혀야 했다. 그러나 반국가적이라는 명분으로 친위대 지역조사실에 구금되어 있던 날 누가 건드렸는지 끝내 종소리를 듣게 되었다. 자신이 일하는 교회의 종소리였다.

강대상으로 마련된 책상 앞에 서자 툴리케의 눈에 눈물이 돈다. 얼마만인가, 이 대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시간은. 그 웅장하였던 예배당은 어디에 가고 우리는 지금 이 폐허 속에서 서 있단 말인가! 목사는 끓어오르는 걱정에 못이겨 예배를 시작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성도들도 통곡하고 있었다. 성도들은 모두 그렇게 서서 눈물을 흘렸다. 노약자들이 벽들을 싸놓은 곳에 몸을 기대어 앉아 있을 뿐 백여명이 넘는 교인들은 서있었다. 목사의 시선이 앞쪽에 서 있는 한 여인과 그 곁에 있는 두 자녀에게 가자 또 가슴이 울렁거렸다.

Gottfried(고트프리트) 성도! “하나님의 평화”라는 이름이었다. 툴리케 곁에서 무슨 일이든지 맡겨진 것은 가리지 않고 일하던 순종파 교인이었다. 공습이 심하던 어느 날, 사람들이 그의 무너진 집을 파헤치자 그 속에 잠자듯 누워 있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었다. 목사는 왜 그를? 주여 왜 그를? 이라고 항거하듯 하나님께 기도하였었다. 지금도 버젓이 살아서

6 세 개의 가까운 에피소드

전쟁으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저 나치주의자들 부터 데려가시지 왜 교회의 충성된 일꾼인 그를! 킬리케 목사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지금 생존해 있는 식구들은 공습을 피해 시골마을로 피신해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루어졌다. 조객들이 교회 공동묘지의 숲을 빠져 나가자 그 미망인이 목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편지를 한장 건네주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와 토마스 그리고 엘프리데야... 나는 오늘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아빠는 차라리 너희들이 떠나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곳은 아직도 비행기들이 많이 떠다닌다.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마치 너희들이 배개를 던지며 놀 때 날리는 새털들 같다. 무서운 전쟁을 왜 하느냐고 너희들이 이 다음에 물으면 대답해 줄 것을 지금 아빠는 생각 중이다..

여보, 우리 킬리케 목사님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또 우셨소. 나도 울음이 그치지 않았소. 성도들은 얼굴을 들어 목사님을 쳐다 보지 못했소. 목사님은 성경 아모스를 간신히 읽으셨소. 귀에 아직도 생생히 울리는 것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46)라는 말씀이요. 교회 안에는 나치당원들이 여기저기 웅크리고 앉아서 설교를 체크하고 있었소. 반나치적인 용어가 들릴 때면 그들은 한결같이 얼굴을 찡그리고 무엇인가 적는 모습을 보였소. 성도들은 그것이 목사님이나 교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속으로 기도하였소. 우리 목사님은 그러나 개의치 않고 설교하셨소.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의 하수같이 흘릴찌로다’ (5:24). 목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지셨소. 우리는 정의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씀하실 때 한 나치당원이 교회를 뛰쳐 나갔소.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끝까지 잘 드릴 수 있었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참으로 이겨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소.

여보, 전쟁이 어서 끝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독일국민으로서 연합군의 승리를 기도해야 하는 비극적인 일을 당했지만 독일은 사탄의 지배로 파

괴하고 있는 나치가 우리나라라고 기도할 수는 없소! 곧 만나게 되길 기도 드리오. 애들 데리고 고생이 많을텐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오. 편지 또 곧 쓰리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길 기도드리면서 사랑하는 그대들의 아빠 그리고 남편 씬.”

남편의 편지를 보인 그의 아내는 말했다. “언제고 기회가 되시면 그 설교를 한번 더 해주세요!” 톨리케 목사는 설교준비를 위해 기도하다가 문득 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아모스서를 다시 읽어내려 갔다. 설교를 위해 성경에 써넣은 자신의 메모들이 눈에 들어 왔다. 1장 첫 페이지에 붉은 색 연필로 고여진 것이 눈에 확연히 들어왔다. 그것은 “---의 서너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1:3,6,9,11,13)였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2:1,4,6). 그의 메모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 나치를 방치하였던 우리의 죄” 라고 성경 여백에 뾰뾰히 씌여 있었다. 3장 8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에는 “목사로서 설교가로서 나치와 우리의 죄목을 침묵할 수 없다. 성경에 따라 정의를 말해야 한다.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라는 메모가,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에는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밖에, 이 시대는 오직 믿음과 말씀 외에 극복할 길이 없다” 라는 메모가, 9장 8절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에는 “나치의 전쟁은 중국에는 승리가 아니라 스스로 패망하기 위한 과정”이란 메모가, 9장 13절 {보라 날이 이를찌라}에는 “주여 도와 주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 22:20절 참고” 라는 메모가 보였다.

톨리케 목사는 그러나 종전(終戰)의 날, 나치라는 사탄의 세력이 꺾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5장 4절에 다시 덧붙였다. “설교제목: 여호와를 찾는 백성은 살리라.”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하였다.

8 세 개의 가까운 에피소드

들:

골케씨의 밤

라이프찌히(Leipzig). 1990년 10월 2일 저녁 8시 경이었다.

골케(Golhke)씨가 어둡침침한 계단을 올라 3층 자신의 방문 앞에 있을 때 문은 자동으로 열려졌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나무 계단이 금방이라도 무너질듯이 소리내며 삐걱였기 때문에 체중과 걸음걸이 습관에 의해 조성되는 음울은 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려 주었다.

문 안에서 아내와 두 딸이 웃음꽃을 활짝 피우고 맞아 주었다. 방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온기가 배어 있었다. 식탁을 바라보니 평소에 없던 음식들이 마련되어 국에서는 김이 오르고 있다. 골케 여사가 가벼운 포옹 뒤에 묻는다.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아이들은 - 아네도레, 크리스티네 - 그 사이에 국을 다시 가스불 위에 올려 놓고 저녁식사 준비를 마쳤다. “응, 시내에 인파가 얼마나 많던지. 전차가 갈 수 있어야지..”

골케씨는 저녁 5시 30분경 퇴근, 회사 부근에 있는 교회의 기도회에 참석하는 소위 열심있는 교인이었다. “평화의 기도”가 너무 정치화 되는 경향이 있어, 십수명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도회를 따로 조직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회를 갖고 있었다.

골케씨는 잠시 TV를 켰다. 거리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저녁 TV에서도 온통 “통일, 통일”이 주제였다. 그도 그럴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나뉘어졌던 독일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감동을 사람들은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차 속에서, TV화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역사는 발전하는

겁니다. 통일은 역사발전의 자연스런 결과입니다. / 인간이 민주주의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 인류는 그 이상(理想)을 포기하지 않을 때 통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 때마다 골케씨는 Nein! (아니다!) 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 표현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이제 포기하는 공산주의 나라의 아직도 포기되지 않은 공산주의 사상의 결과라는 생각에 경악을 떨치우지 못했다. 과학적 역사발전, 인류라는 동덩어리 같은 존재를 무한한 가능성의 이성체로서 파악하려는 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다. 그는 내일로 다가선 통일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에 변함이 없었다.

“아빠, 무얼 생각하세요. 어서 드세요. 국 식습니다.” 라는 말에 골케씨는 자신이 지금 식탁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골케씨의 머리에서는, 통일을 하나님의 역사주권에서가 아니라 인류의 이상적인 역사발전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짓밟아 버리는 자들이 이미 빨갭게 물들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그는 하나님을 다시 향하게 되었다. “주님, 저들은 저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네도레는 14살, 크리스티네는 15살. 모두 라이프찌히 시내에 있는 실업계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두 딸을 보면 골케씨 부부는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든든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 600명 가까이 되는 학생 중에 파란 스카프가 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두 딸 뿐이었다. 파란 스카프는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외치며 선서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당(黨)의 선물이었다.

예수를 구주(救主)로 고백하는 골케씨는 자신의 아이들이 이 스카프가 없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알지만.. 더구나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 헛된 맹세를 하지 않기 위해 파란 스카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펄박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을 볼 때 골케씨 부부는 확신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저 애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면서도 1등을 받아 보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공공연히 칭찬할 수 없었던 것은 모두 그들이 “예수쟁이”라는 사실에 있었다.

골케씨 가족은 머리를 마주대고 기도했다. 통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파란 스카프가 없어진 시대를 감사하였다. 억눌렸던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된 시대를 감사하였다. 예수쟁이라는 사실이 불평등의 이유가 되지 않고, 학교에서 당해야 했던 비웃음과 조소의 시간이 지나간 것을 감사하였다.

통일은 골케씨네에게는 다른 식으로 이해되었다.

통일 전야의 밤이 깊어간다.....

셋:

올가 뜨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 이야기

뒤셀도르프(Düsseldorf)의 황혼이 깊어 가고 있었다.

아직 켜지지 않은 가로등 사이로 땅거미가 오르려 하는 시각이었다. 시내 한복판 신호등에 빨간불이 보였다. 모든 차량이 일시불관하게 신호를 받고 섰다. 1초, 2초, 3초... 녹색 신호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차량들은 다시 일제히 가스를 주기 시작했다. 경주장에 나선 차들처럼 출발을 준비했다. 그리고는 메르체데즈, 아우디, 오펜사의 위용을 자랑하는 차들이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그러나 3차선의 5번째 서 있던 차가 나가지 않았다. 6번째 차는 경적을 울렸다. 그 소리는 날카롭게 울려 나갔다.

5번째 차는 파란불을 받고도 출발하기는 커녕 급하게 운전석 문이 열리

더니 한 사내가 나왔다. 그는 보행자들이 있는 인도로 뛰어갔다. “Hilfe, Hilfe!”(도와 주세요!) 금방이라도 주저 앉을 것 같이 보이는 차에서 나온 사나이는 몇 마디 단어 밖에 독일어를 할 줄 몰라 보였다.

그의 차림은 너무 남루하여 전쟁터에서 피난온 난민같아 보였다. 눈에는 설움이 가득하고 용기라는 것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체념, 절망이 지나치면 그렇게 보일까? 그가 보이는 동작은 소리없는 절규 같았다.

한 청년이 그에게 다가 왔을 때 그가 내 보인 것은 한 장의 종이였다. 내용은 이러했다. “저는 차라바초프라는 소련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암에 걸려 죽게 되어서 독일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병원으로 안내해 주세요” 서투른 독일어였다. 오래 전 러시아로 이주했거나 전쟁 후 그곳에 남아 살게 된 독일인 후예들이 대필해 준 느낌이었다.

가로등이 막 켜지려 했다. 5번째 뒤의 차들은 영문을 모른 채 scheissssss!(제길헐) 하고 차선을 빠져 나갔다. 다음 날 독일의 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1면에 실렸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소련의 한 구석에서부터 5,200 Km를 달려온 아버지의 사랑.” 그러나 이 이야기의 뒤에 숨겨 있는 사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기자들도 정작 캐내지 못했다.

올가는 강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멀리 차 한 대가 중앙아시아의 지평선을 지나 사라져 갔다. 올가는 흐르는 강을 보면서 그렇게 서 있었다. “어찌해야 하나...” 그녀가 느끼고 있는 것은 바람결에 힘없이 날리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반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음을 잃은 지 오래 된 얼굴. 겨울나무처럼 말라버린 아들의 몸. 약기운으로 인해 빠진 머리. 몇년 째 암에 시달리다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7살 난 이반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올가는 생각했다.

목사님은 먼 길을 달려와 위로해 주셨지. 기도 끝에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지. 그도 아들의 앙상한 몸을 붙잡고 주여! 주여! 만을 외치셨지. 올가

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구름은 하늘을 아름답게 수 놓았다. 새털구름이 높이 떠 있었다. 어린 아들이 벌써 저 곳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약해지면서 눈물이 났다. 주여 안됩니다. 주여 안됩니다. 이반은 이제 일곱 살 밖에 안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녀의 곁으로 남편이 다가왔다. 올가는 그 때 외침으로 밖에 나오지 않던 기도의 어떤 끝에 와 있었다. 언어가 끝나고, 감정의 느껴짐도 끝나고, 그녀의 감각으로 느껴지던 주변의 모든 대상이 몸에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되는 끝에 와 있었다. 올가는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기다림으로 그렇게 버티고 서 있던 바위 같았다, 아니 산 같았다. 그리고 서서히 아들의 고통에 손을 대고 계신 분의 마음이 그에게 다가왔다. 올가의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아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 순결하고도 엄청난 고통이 올가를 감쌌을 때 올가는 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그 순간 올가의 고통은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갔다. 고통 속에서 고통이 위로받고, 고통 속에서 고통이 치유되며, 아픔 속에서 아픔의 상처들이 싸매여졌다. 아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며, 고통이 변하여 환희가 되는 세계는 예수의 십자가였다. 모든 아픔이 “그 아픔”을 통하여, 모든 고통이 “그 고통”을 통하여 치유함을 얻었다. 올가는 자신의 영이 고통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앞으로 다가섰다.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 “이반을 데리고 독일로 가세요. 독일에 가면 이반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차라바초프는 아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나 실현될 수 없는 말이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황되었다고 여겨졌다. 이촌 구석에서 독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차도, 돈도, 길도, 공산당국의 여행허가도, 모든 여건이 될 수 없는 일이었다. 남편은 끝내 나는 자식 죽는 게 마음 편해서 이려고 있는 줄 아느냐고 쏘아 붙였다. 남편이 올가에게 내일 아침 이반을 데리고 독일로 떠나겠요 라고 말한 것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였다..

(올가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다. 세계지리도 잘 모르고, 국제정세도 알지 못하는 촌뜨기 아낙이었다. 그런 여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남편의 숙제였다. 차라바초프는 어느 날 기도하던 중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머나먼 별의 길을 지나오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아내를 움직인 그 사랑의 본체를 알 것 같았다. 예수님은 그 머나먼 별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으로 치유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픔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는데, 우리의 이 외부조건이 무슨 장애가 되리요? 그 먼 별의 길에 비하면 독일이 무슨 먼 땅이리요,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위해 무엇을 주저하리요? 아들의 고통을 덜 수만 있다면 내 어디든 가리. 올가는 아들을 차에 싣고 떠나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 비로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